

22

통 일 중 시

統一과 民族主義

陳 德 奎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政博)

통일연구소

차 례

1. 序 言 3
2. 民族과 民族主義와 文化的 基盤 6
 - 가. 民族主義의 再生 6
 - 나. 文化的 存在樣式과 次元 15
3. 民族主義와 近代民族國家의 形成 20
 - 가. 民族國家의 形成과 類型 20
 - 나. 政治的 信念과 民族性的 形成 29
4. 韓國社會에서의 民族主義의 展開 33
 - 가. 韓國社會에서의 初期 民族運動과
民族主義의 展開 33
 - 나. 植民地 民族運動의 限界 43
 - 다. 韓國民族主義의 現實的 限界 70
5. 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理念的 基盤 74
 - 가. 統一의 理念的 前提 74
 - 나. 兩體制 理念的 現實性 79
 - 다. 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理念體系 87
6. 結言－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삶의 樣式 92

1. 序 言

이 글은 남북한의 통일과 그것에 연계된 民族主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민족주의에 입각한 民族國家의 내용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내용은 다음 몇가지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한국의 統一에서 민족주의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셋째, 민족국가로 지향하기 위한 민족정신의 政治文化의 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통일 이후 한국의 民族主義가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적 지향가치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다섯째, 민족국가로서의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삶의 樣式과 內容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위의 다섯가지 사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실적인 정치상황의 중요한 인식의 가름으로 남북한관계의 성격을 인식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서 統一問題가 실제로 민족주의

적 내용과의 함의성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먼저 현실적 상황을 논의하면서도 미래적인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觀念的 論議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음을 전제하게 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認識方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의의 구성이 역사적 전개를 전제로 하는 歷史政治學的 인식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도 밝혀 두기로 한다. 이러한 역사정치학적 인식이 지난 날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編年體의 기술로 전개하기보다는 정치적 흐름의 인과관계를 역사적 맥락에 결부하여 그 구체적인 展開樣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자연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시하게 된다. 즉, 첫째로 歷史政治學에서는 행위인자의 因果性을 시차적 계기성으로 파악한다. 둘째로, 역사정치학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단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變因들 사이의 연관적 복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셋째로, 이들 因果關係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특히 경제와 문화, 전통 등과 깊은 연관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게 된다.(Dennith Smith, The Rise of Historical Sociology, Oxford : Polity, 1991)

통일과 민족주의를 歷史政治學的 인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종합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논리적 統一性을 설정할 필요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M. Mann의 IEMP(Ideology, Military, Economics, Politics)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다.(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즉, 그의 논의에 따르면 역사정치학적 인식은 이념과 경제, 군사, 정치의 상호 연관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民族國家의 형성과 전개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이 글에서 그대로 전제하게 될 때 韓國政治社會에서 분단과 민족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전반적인 社會現象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조성된 결과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民族主義와 民族性 그리

고 民族國家의 일반론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分斷問題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 지향을 논의할 생각이다.

2. 民族과 民族主義와 文化的 基盤

가. 民族主義의 再生

근대 민족국가(nation state)는 16세기와 17세기의 르네상스가 가져다 준 산물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基盤과 基準을 국가와 일치시키게 된 것은 유럽의 경우 대체로 民族主義의 대두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는 있었다. 고대의 都市國家라든가 중세의 神政國家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국가 구성원의 모두의 참여에 의거한 主體的一體性을 결여하고 있었다. 국가 구성원들이 국가와 일치된 감정을 가지고 나의 祖國이라는 의식으로 결속하게 된 것은 민족국가로부터였다.

民族國家가 나타나고 난 뒤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국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民族主義와 民族國家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민족의식을 구성하게 되는 전통적 가치와 그것의 현실적인 정치에서의 영향력으로서의 政治文化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민족주의를 부정하거나 규탄하는 사람들도 민족주의가 政治社會에서 특히 국가의 발전과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인하기에는 현실적인 政治展開가 너무 그것에 연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이 시작되자마자 두가지의 극적인 사실을 世界政治에서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東西冷戰體制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동서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인간 사슬로서의 손을 잡은 채 촛불을 들고 祖國의 독립을 외치면서 찬송가를 합창했던 발틱 3국의 獨立運動의 모습이었다. 이 두가지 모습은 民族主義가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감격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다.(Harmon Zeigler, The Political Community, New York : Longman, 1990, p. 127)

베를린 장벽만해도 그것은 독일의 민족주의가 戰前의 연합국이 규제했던 冷戰體制的 霸權主義를 넘어서는 한 상징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연합국은 敗戰國家인 독일을 삼등국가로 전략시키기 위해서 동서독으로 분할 지배하였으며,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美·蘇·英·佛의 공동 분할 점령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프러시아 이후의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었고 응징이었다. 그것은 동서독의 서로 다른 體制의 강요에 의하여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을 쌓게 되었고 近代 獨逸民族運動의 상징인 부란덴부르크 문은 아무도 지나지 못하는 곳으로 유폐의 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독일인들의 마음에는 비록 한때 나치즘의 國家主義로 세계전쟁을 일으켰지만 분단된 국토를 독일민족의 수치로 여기게 되었다. 獨逸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동서독의 노력은 강대국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獨逸統一이 유럽의 安保와 세계의 平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서 마침내 통일을 이

록할 수 있었다. 분단의 장벽이 헐리는 그 날 독일인들은 다시 한번 獨逸民族의 가능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발틱 3국의 경우도 民族主義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국민적 일체감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본래 自主獨立國家였던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3국이 1939년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협정(the Molotov-Ribbentrop Pact)에 의해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는 소련에 병합되었고, 리투아니아는 독일에 병합되었다가 소련에 병합되었다. 1941년에 독일군의 占領을 받았지만 전후에는 소련에 완전 併合되고 말았다. 발틱 3국의 民族運動은 소련이나 독일이 점령했을 당시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스탈린의 무자비한 民族抑壓政策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의 노력은 민족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적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民族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소련식의 공산주의 교육에 건디어 내는 고통까지 감내하였다. 마침내 소련이 무너지게 되자 이들 발틱 3국은 때로는 武力鬪爭으로 때로는 무저항의 民族的 大連帶를 통하여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거대한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적 주체성이 이들 사회에서는 勝利를 쟁취하게 하였다.

세계사에서 살아 움직이는 민족주의는 이제 그 거센 파고를 國際主義나 세계적 普遍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강대국의 해계모니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물결이 되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역사의 힘이 되고 있는 民族主義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민족의 構成員들이 자기 민족을 단위로 하는 완전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발전적인 民族國家를 세우려는 이념과 운동과 지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뒤에서 이데올로기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현실적 意味와 內容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民族國家만이 현대 세계사에서는 올바른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 만일 민족국가다운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從屬國家나 新植民地國家 또는 周邊部國家는 강대국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반민족적 국가에 불과하고 이는 민족적 성원의 정상적인 민족발전에 역기능적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民族國家를 어떻게 이룩하는가는 국가의 최대의 課題이며 국민의 期待이기도 하다. 민족국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民族主義가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한 일반적인 生活樣式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를 이룩한 나라일수록 바람직한 民族性이 중요한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성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민족국가에 대한 忠誠心과 민족성원에 대한 團結과 統合意識이 구체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성이라는 다른 말로 말해지기도 하지만 民族性은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에 바탕을 두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傳統文化의 현실적 기능화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단순히 말만 주장하거나, 민족성원에 대한 統合을 말하면서도 分裂과 葛藤을 일상화하거나, 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모방성을 보이거나, 외국영향의 下手人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모두 민족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구체적으로 愛國心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전쟁시 젊은이들 중 軍隊出戰을 기피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며, 특히 대학재학생 중에서 기피자의 비율로써 愛國心을 설명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2차 대전시에 군대에 출전하지 않는 젊은이는 자기 고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비겁자로 낙인찍혔으며, 심지어 결혼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大學學生들의 군대 자진입대와 전사자가 많았으며, 이를 기념하는 銅版이 대학의 기념물로 주조되기도 했다.

애국심을 표상하는 또 다른 요소는 犯法者에 대한 신고정신이다. 불법을 자행하거나 범죄자를 묵인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正義觀念이 일반시민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 교통질서 위반이나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삶의 행동이 일반화되어 있어야 愛國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 지표는 사회구성원 중에서 老弱者나 病者에 대한 사랑의 헌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의 애국심을 설명하기도 한다. 노인이나 고아들이 방치된 사회라면 愛國心이 생길 리가 없다. 그리고 병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는 애국심이 消盡된 사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愛國心을 말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애국심을 결여한 사회라 할 수 있다.

民族性을 구성하는 이러한 생활양식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民族主義를 문화라는 차원에서 인식할 경우 그것은 “한 사회의 정당화된 文化樣式이며, 그것에 의해서 자기나라를 인식하고 생활하는 방법이다.”(Harmon Zeigler, 같은 책, p.43) 그러므로 문화로서 민족주의적 성격이 내재하게 되며 문화의 生活樣式으로 그것이 표현된다. 이 점에서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진다. 문화는 한 사회의 集團이 가지고 있는 집합된 관습, 습관, 관념, 가치, 전통을 의미한다. 즉, 문화는 삶의 靑寫眞이며 地圖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마련된 삶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며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간에 인간의

행위를 위한 잠재적 안내자로 존재하게 된다.”(Clyde Kluckhohn and William Kelly, “The Concept of Culture,” in *The Science of Man*, ed., Ralph Lint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5, p.97)

그러므로 文化는 한 사회에서도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존립하게 되며 그러한 문화가 서로 중복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가령 미국에서 우리가 黑人文化라는 말을 하거나, 支配文化로서 소위 와습(White Anglo-Saxon Protestants, WASP)을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南部文化라는 말들이 이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지역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질 수도 있고 직장이나 단체마다 서로 다른 문화양식을 가질 수 있다. 職場에서는 그 직장 나름의 사기나 분위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다면 文化는 곧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유도하고 주도하는 비공식화된 行爲基準體系”(Terrence E. Deal and Allan A.Kennedy, *The Culture of the Corporation*, reading, Mass : Addison-Wesley, 1982, p. 15)라고 할 수 있다.

나. 文化的 存在樣式과 次元

문화는 정치에 대해서 原因的인 성격이기도 하며 結果的인 현상이기도 하다. 문화에 바탕을 둔 사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형식으로 制度化된 것이 법이거나 정치이기 때문에 政治制度는 문화적 성격과 일치되는 면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물론 한 사회의 정치적 성격이 그 사회의 기존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새로운 文化樣式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① 기술 :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만들어 내는 道具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양식.

② 경제 : 재화와 용역의 生産과 配分과 消費에 연관된 행위양식.

③ 사회조직 : 한 사회에서 개인들간의 特徵化된 관계로 노동분업, 사회정치적 조직 또는 국가간의 조직 등.

④ 종교 : 미지의 절대적 權威나 價値에 대한 인간

관심의 생활방법.

⑤ 상징체계 : 언어, 예술, 문학, 민속 등과 같은 인간의 삶의 知識과 연관이 있는 인식표현.

문화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要素들의 접합결과로 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되는 文化樣式을 보여주게 된다. 즉, 종교나 가정, 예술, 인간관계 등에서 다양한 성격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劃一性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간에 다른 내용들을 포용하는 多樣性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존재양식이 정치에 미치는 성격으로는 그 사회의 傳統的 文化의 영향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동의형(Acquiescence)이고, 다른 하나는 복종형(Obedience)이다.

먼저 同意型은 흔히 유럽과 미국 등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문화적 성격이 政治社會의 구성원에 미치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문화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강한 罪意識과 그것에 대한 代贖性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실성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相對的이며, 자기의 주장이 가장 올바른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생각을 맞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오랜 기독교전통은 교회가 社會文化의 일역을 맡고 있었고 정치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專制性을 극복하는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의형의 사회로 먼저 들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기독교적 전통과 함께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階級構造가 동의형 사회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 즉, 영국이 얼마나 계급 중심의 사회인가는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는데 런던의 下層民이 사용하는 런던토박이말인 코크니(Cockney)는 사립학교를 나온 옥스-브리지(Ox-Bridge)출신의 上流階級人士들과의 언어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계급관계는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들 사이에 階級的 共存性을 확보하는 동의의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오늘날 영국의 同意型의 지나친 속성이 경제발전

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노동조합과 경영주들 사이의 오랜 勞使協定은 자연스럽게 생산성보다는 협조를 중시한 결과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Anthony Sampson, The Changing Anatomy of Britain, New York : Random House, 1981, pp. 327~328)

동의형 사회라고 해서 모두 영국처럼 妥協과 寬容의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미국도 同意型的의 문화양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격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취지향 사회(Achieving Society)의 성격을 보여 주었다. 즉, 인간의 삶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創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성취지향 사회는 미국에서 일찍이 開拓精神(Frontier Spirit)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문화적 성격은 자연스럽게 미국인에게 낙관성과 모험적인 공격성까지 가미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격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R. 벨라는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의식을 功利的 個人主義(Utilitarian

Individualism)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Robert Bellah, et als., Habits of Hear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336)

“이것은 인간본성에서 자리잡고 있는 기호와 두려움-가령 홉스가 일찍이 말했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權力意志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恐怖感 같은 것-과 같은 특정형태의 個人主義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는 인간의 삶 자체를 개인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 목적과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功利的 個人主義는 사회를 개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契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공리적 개인주의는 비록 “남들이 해치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자.”라는 식의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해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樂觀論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 계급이나 신분과 같은 것에 의해서 차별을 두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평등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 개인의

能力과 自己成就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본위의 인식이 공리적 개인주의의 한 성격을 이루고 있다. 누구나 創意的으로 노력하게 되면 마침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도 이러한 공리적 개인주의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식의 文化樣式으로 존재하게 된 공리적 개인주의는 정치이념적인 면에서는 현실을 긍정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확산하는 保守主義的 성격과 右派志向의 요소를 가지게 된다.

3. 民族主義와 近代民族國家의 形成

가. 民族國家의 形成과 類型

문화적 존재양식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것이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民族主義는 그 사회의 전통적 성격, 특히 문화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政治社會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의 정치적 귀결은 곧 民族構成員에 의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족 국가는 민족구성원에 의한 일체화된 國家觀念, 즉 '내나라, 우리조국'이라는 관념이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인 독립국가로 존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는 植民主義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국민의 일반적인 文化樣式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사회계급이나 종교나 지역성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조국에만 忠誠을 다하려는 의식이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어떠한 이념도 계급도 정파도 종교도 超克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민족성원으로 민족국가를 이루는 일에 최대의 충성을 바치려는 의식에서만 가능해진다.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民族主義와 民族國家의 關係>

민족주의의 유형	정치사회의 문화양식	민족국가체제
1. 자유민족주의 : 영국	계급기반의 동의적 정치구조	경험적-다원적 국가 체제
2. 통합민족주의 : 독일	토지귀족과 산업가 중심의 질서와 위계 구조	관념적 국가주의체 제
3. 근대화민족주의 : 일본	봉건체제적 군사문 화	근대화의 국가주의 체제
4. 비서구민족주의 : 중국	아시아적 유교사회 의 문화양식	반제-반봉건적 계급 국가

위에서 설정한 민족국가 중에서 먼저 英國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영국은 이미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民族國家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영국사회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와 그것에 의한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이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카톨릭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영국성공회의 종교적 영향력이 민족국가의 宗教的 基盤을 이루고 있었다. 영국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헨리 8세의 首

長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英國化는 국민의 정신적 일체감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부르주아 계급이 전통적 귀족계급과 손을 잡게 되었고 그것이 동의적 정치구조, 즉 議會主義를 통해서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스페인의 무적함대의 격파와 영국식민지의 전세계적 확대는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英國民族主義가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동의적 정치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의회주의로 정착되었으며, 밖으로는 유럽대륙의 세력균형과 해외 식민지 확대로 나아갔다. 그 결과 영국의 민족주의는 마침내 19세기 말에 이르면 帝國主義의 한 전형을 이루게 되었으며 兩次大戰을 경험하면서 앵글로색슨의 위세를 세계화하려는 강력한 민족국가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민족주의는 近代民族國家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기반이 되었는데, 특히 민족주의는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自由民族主義의 한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국가 형성의 또 다른 사례는 統合民族主義의 성격을 보여 주었던 근대 독일을

들 수 있다. 19세기만해도 독일은 후발적인 분열된 나라였으며, 그리고 이웃나라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었다. 그 당시 독일의 지식인들은 反外的 民族感情에 사로잡혀 있었고, 신비로운 人種主義와 강력한 국가발전의 환상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독일에서의 민족주의는 시와 소설, 동화의 주제로 쓰여졌으며 철학적 사상체계로 음악의 작곡으로도 등장하였다. 점차 독일의 민족주의는 국민적 감정에 바탕을 둔 大衆運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독일 지식인들의 의식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성격은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현실적이기보다는 낭만적이었으며,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주의적 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헤겔과 니체는 이 당시 民族主義的 知識人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은 존 로크나 홉스적인 社會契約論을 거부하였으며, 그러한 논리는 개인의 이기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가를 단지 개인들의 탐욕의 덩어리로 전락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국가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反猶太人的 感情을 노출하였

던 당시의 대표적인 작곡가 리차드 바그너만해도 그는 전쟁을 찬미하고 개인의 희생과 죽음을 미화하는 국가의 영광에 모든 것을 돌리는 노래를 작곡하였다.(R. Bendix, Kings or Peopl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382~405)

독일에서 통합적 민족주의의 강한 물결은 독일의 통일에 정신적 초석을 놓게 되었고 後發國家인 독일을 先發産業國家와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후진적 문화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思想體系를 민족주의적인 것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헤겔을 비롯한 피히테, 니체 등의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감시켰고 이들에 의한 독일의 民族國家의 형성은 마침내 밀과 호밀의 결합이라고 불리우는 엘베강 동부 지역의 토지귀족인 읍커와 산업자본가들 사이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게 했다.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은 자연히 20세기의 國際關係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1차 대전의 敗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독일의 민족주의는 마침내 진보적 지식인의 사유체계로서의 社會主義와 민

族主義의 접합이 시도되었지만, 전후 국민의 욕구와 패전에서 오는 국민적 불만감은 독일과 전쟁을 치루었던 강대국에 대한 강한 증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후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列強이 보여 주었던 독일응징론적 조치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쉽사리 히틀러의 人種主義的 편견으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민족주의는 패전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다시 한번 통일의 原動力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쟁에 의해서가 아닌 경제와 평화에 의한 유럽통합에 앞장서는 世界文化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주의가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 기여한 다른 사례로는 日本의 경우이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근대화 민족주의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다. 近代化 民族主義는 전통적 前近代社會로부터 근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산업화된 사회로의 지향을 추구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므로 근대화 민족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은 자기나라의 傳統性에서 이탈하여 근대 서구의 민족국가와 같은 성격의 사회제도를 창설하거나 모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었다. 封建的 軍閥體制로서의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근대 민족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던 일본은 봉건적 전통제도를 일약 근대적 사회제도로 변모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3대 사회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근대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는 데 앞장섰던 開國 지향의 知識人들, 일본국가의 대외적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헌신했던 武士階級, 그리고 일찍이 자본주의적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資本家的 企業人들이 그들이었다. 이들 3대 세력에 의하여 일본은 후발 산업국가이면서도 선발 산업국가와 경쟁하게 되었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면서 天皇制 國家體制를 발전시켰다. 오히려 1차 대전에서는 전승국의 위치를 차지하여 동아시아의 盟主로 자리를 굳혔지만 2차 대전에 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강한 민족주의적 국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록 명목에 불과하지만 천황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日本精神에 의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근대화 민족주의로 정착되었다.

非西歐 民族主義은 주로 19세기를 고비로 하여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아시아·아프리카에서 主權獨立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민족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비서구 민족주의는 맥마혼 불의 주장과 같이 反白人主義的 성격, 反資本主義的 성격 그리고 反帝國主義的 성격을 주조로 하였다.

이러한 비서구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한 사례를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영국과 미국 등의 침탈이 시작되었던 18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解放運動과 洋務運動, 變法自強運動 등의 방법으로 중국의 국가적 위신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민족운동의 한 성격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결국은 강대국의 영향력하에 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軍閥과 買辦資本家を 앞장 세웠던 서구의 제국주의는 중국을 분할지배하는 상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맥마혼 불, 손중기 역,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학문과 사상사, 1978)

중국의 민족주의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마오쩌둥의 中國共產黨이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국의 農民民族主義를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즉,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反帝國主義的 성격과 反封建主義的 요소를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외국의 제국주의적 기반을 설멸하는 전형적인 민족국가의 형성은 마오쩌둥의 전체 중국의 지배가 사실상 완료되었던 1949년까지 약 30여년의 民族鬭爭의 결과였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 전세계에서 중국의 자리매김을 이전의 국가적 영광에서 다시 재현하여야 한다는 중국인의 열망은 여전히 中國民族主義의 한 속성이 되고 있다.

나. 政治的 信念과 民族性의 形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民族國家의 형성은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다. 만일 민족국가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라면 아무리 국가제도를 마련하였다해도 그것은 民族的 正當性을 확보한 민족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은 그것이 비록 서구사회이거나 비서구사

회이거나 공통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민족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제도적 성격을 구비하고 있지만 민족국가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民族國家를 규정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무엇보다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민족구성원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支持를 확보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② 대외적으로 독립된 主權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민족성원의 통일된 단일국가이어야 한다.

④ 민족적 傳統과 正統性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때라야 민족국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소를 결여한 경우 民族國家라고 말하기보다는 강대국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從屬國家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강대국은 그들의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新植民主義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국가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게 된다. 強大國들이 추구하는 신식민주의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이들 지역, 특히 이

전의 식민지였던 지역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신식민지적 정치신념을 국민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그러한 정치적 신념이 곧 新植民地的 文化樣式으로 정착되고 만다.

신식민지적 문화양식의 구체적인 성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分裂意識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사대주의적 追從意識을 들 수 있다.

셋째로, 관념과 실천의 괴리현상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분열의식은 가장 뚜렷한 新植民主義的 문화양식의 특징이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강대국은 식민지의 지배세력을 買辦化하게 된다. 이들을 식민지에서 강대국의 이익에 기본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下手人的 성격을 가지게 한다. 가령 인도에서 지배세력이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게 한 경우라든가 또는 2차 대전 이전 중국에서 買辦資本家들이 영국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기능하게 한 것 등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매판적 지배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政治社會를 분열시킴으로

써 사회적 통합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가장 중요한 식민지적 문화양식은 전체 사회 분위기를 分裂意識으로 심화시키게 하고,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강대화를 저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민족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事大主義的 追從意識은 국민들에게 마치 강대국에 추종하는 것이 시대의 進運이고 사회의 志向價値인 것처럼 설득하고 논리화하는 작업을 보여 주게 된다. 文化에서의 추종은 물론이고 思想과 심지어 生活樣式에서도 강한 추종성을 보여 주게 된다. 주체적이거나 전통적 행위양식은 反時代的인 것으로 규탄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신식민지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추구하는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마치 主張만이 난무하고 실제로 별다른 結實을 얻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주게 된다.

4. 韓國社會에서의 民族主義의 展開

가. 韓國에서의 初期 民族運動과 民族主義의 展開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의 전개양상을 植民地的 狀況에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로 하자.(진덕규, “1920년대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1)

한국에서 植民地體制가 구조화됨에 따라서 민족운동도 그것에 대응되는 변용을 보여 주었다. 이를 식민지시대의 통치양식과 연계시켜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해진다. 식민지 통치양식은 제1단계에 해당되는 1919년 이전까지의 이른바 武斷統治期, 그 뒤를 이은 文化統治期를 거쳐서 다시 1930년대 중반기부터 전개되었던 이른바 戰時體制에 이르는 3단계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식민지적인 통치구조적 성격과 연계된 국내의 민족운동은 대체로 그 첫단계에서는 啓蒙的 民族運動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뒤 제2단계는 3·1운동을 겪고 난

이후 사회주의주도의 民衆的 民族運動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民族運動의 地下化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각 시대의 민족의식을 제고 시켰던 민족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성격면에서도 역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실력양성론 등의 民衆啓蒙論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社會主義的 民族主義論으로서 코민테른적인 주장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로 해외민족운동에서의 이론적인 차용,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상해임시정부에서의 民族運動的인 論理가 유입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은 구체적으로 각 시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여기서는 제1단계에서는 3·1運動과 物産獎勵運動을 지적할 수 있고, 제2단계에서는 小作爭議와 勞動爭議에서의 민족문제에 대한 성격적인 표출양식을 인식할 수 있으며,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讀書會運動 등을 예시할 수 있다.

1919년의 3·1운동은 근대 한국민족운동에서 일종

의 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에 의하여 한국의 近代民族運動은 사실상 전민족적 결집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민족운동이 구체적으로 식민지 민족운동의 한 범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로 3·1운동이 차지하고 있었던 民族運動史的인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그 뒤의 민족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인식하려는 것이다.

3·1운동에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그것이 근대 韓國民族運動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진 여러 갈래의 민족운동의 총결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1876년의 강화도조약 이후 帝國主義的인 외세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던 일련의 민족운동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1884년의 개화세력의 혁신운동,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1896~1898년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1900년대 초기의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1910년대의 국내외의 일련의 독립운동의 총체적인 결집이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斥邪系의 자주적

인 독립주장의 열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화이념이 내세웠던 開化發展의 근대화적인 주권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학농민전쟁에서 전제되었던 反帝·反封建의 평등주의적인 성격이 들어있었다. 이들 세갈래의 서로 다른 민족이념적인 논리는 사실상 서로간에 대결적인 요소도 들어있지만 국가가 현실적으로 外勢의 제국주의적인 침탈에 의하여 식민지로 전락된 상황에서는 한가지의 민족운동적인 이념으로 결집되어 이른바 植民地 民族運動의 한 전형적인 성격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3·1운동은 바로 한국 근대민족이념의 통합적인 형성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에서 지적될 수 있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운동이 전체 민족구성원 모두의 主權回復을 위한 民族大聯合戰線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이 운동을 시도했던 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民族運動의 여러 계열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1운동의 조직과 실제 운동의 전개에 대한 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개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중국의 上海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의 활동에서 그 시발을 두고 있다. 신한청년당은 밖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金奎植을 파견하여 한국의 獨立을 역설하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사람을 파송하여 전후의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獨立運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국내에 제1차로 파견된 선우 혁, 김철은 주로 평안도 일원의 이전의 新民會의 회원을 중심으로 독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의 거사 방법을 논의하였다. 선우 혁이 주로 국내의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을 만났다면, 김철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천도교계의 인사들과 회합하여 獨立運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신한청년당에서 제2차로 파송된 서병호, 김순애, 백남규 등은 주로 남부지방에 있는 民族指導者들과 협의하였다. 신한청년당의 이러한 활동은 단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있는 韓國人留學生에게 접촉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용은, 장덕수, 이광수 등을 파

견하여 이들이 직접 유학생들과 접촉을 가졌으며, 이른바 동경유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2·8獨立運動의 선언서는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한 李光洙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東京의 유학생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2·8독립선언은 그 선언문이 송계백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되었으며 그에 의하여 국내의 민족지도자로 人望을 모으고 있던 현상윤, 최린에게 전달되었다.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독립선언서,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를 각국 대사, 공사, 일본 정부,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 동경 및 각지의 신문사와 잡지사에 우송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기독교청년회관에서 留學生大會를 개최하여 회중 약 200여명이 모여 2·8獨立宣言을 발표하였다.

2·8독립선언은 사실상 국내의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기폭제가 된 셈이다. 국내에서는 신한청년당에서 파견된 密使가 천도교측과 접촉하였고 그 당시 천도교는 국내에서 가장 조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운동적인 종교단체였다. 天道教의 오세창, 권동진 등은 신한청년당과의 연락과 동경유학생과의

접촉을 통하여 전민족적인 독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천도교 교주 孫秉熙로부터 내락을 얻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가지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 첫째는 獨立運動에의 참여는 전체 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전 민중적 대중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며, 둘째는 독립운동의 조직이나 체계를 一元化하여 효율을 도모할 것을 내세웠다. 그리고 셋째로는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전개방법으로는 일체의 非暴力的인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上海의 신한청년당의 연락을 받고 있었던 관서지방의 기독교계통은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李昇薰에게 천도교에서 연락이 닿아서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밖에 서울의 장로교파, 감리교파도 참여하였으며 특히 YMCA의 청년들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서울의 전문학생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마침내 全民族的 聯合戰線의 형태로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3·1운동의 거사일로 정한 1919년 3월 1일은 마침

高宗의 국장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택했으며 이 날을 계기로 하여 전국에서 萬歲示威가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19년 3월에서 그해 5월 말일까지만해도 전국적으로 집회 수가 1,542회, 참가인원 수가 202만 3,098명, 사망자 수가 7,509명, 부상자 수가 15,961명, 피체포자 수가 46,948명이었다.

이처럼 3·1운동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反日獨立運動이 가지는 민족운동에서의 의미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운동에서의 전민족적인 직접 참여를 지적할 수 있다. 日帝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여 전체 민족의 구성원이 계급적인 차이나 종파를 초월하여 함께 反日的인 民族運動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일찍이 민족운동선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서, 그만큼 전민족적인 민족운동의 현실적인 의지의 결집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1운동이 전민족적인 民族抵抗鬪爭運動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하나는 실제적인 지도부와 일반 민중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당시 3·1운동을 주

도했던 指導部는 민족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지만 이들 대다수는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제약 때문에 非暴力·平和的인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일반 민중들에게서는 이른바 만세시위라는 반대수단 이외의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준 희생은 지나칠 정도로 심대한 것이었다. 오히려 武裝鬪爭이나 暴力的인 抵抗鬪爭을 전개했다라도 희생의 차원에서는 그 정도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당시 3·1운동의 非暴力問題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잘못 선택된 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

3·1운동을 초기에 주도하였던 이른바 33인의 경우에도 이들이 民族指導者이기보다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에서의 효과적인 투쟁이라는 면보다는 啓蒙的이고 獨自的인 위치에 안주함으로써 민족운동이 가지고 있는 투쟁의 苛烈함과 운동의 持續性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아마도 3·1運動은 거대한 규모의 전국적인 차원의 실로 역사적인 大鬪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가져다 준 결과적인 사실은 다음 두가지의 가시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국내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의 武斷的인 暴壓政治가 이른바 文化統治라는 일종의 회유책으로 바뀌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국내의 민족운동을 계기로 하여 해외에 있는 民族獨立運動家들이 중심이 되어 전민족적인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上海臨政이나 또는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어서 이른바 本國進攻을 시도하는 무장 독립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국내에서는 이른바 長老層의 보수주의적인 독립운동에 불만을 가지게 된 청년들에 의한 새로운 독립운동의 가능성으로 社會主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朝鮮共產黨의 조직체계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운동으로서의 3·1운동이 보여 주었던 이념적인 한계나 전략상의 문제 그리고 전민족적인 단일적이고 실질적인 지도체계의 형성에서 온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서나 3·1운동은 한국 近代民族運動에

서 최초로 통합적인 민족운동을 결집시켰으며, 여기에서부터 韓國民族運動이 현실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기 다른 두갈래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는 우파 지향의 文化啓蒙主義 중심의 민족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좌파 중심의 社會變革의 민족운동이 그것이다.

나. 植民地 民族運動의 限界

민족운동에서 3·1운동 이후 보수 우파적인 시각에서 전개된 것이 民衆啓蒙運動的인 발상에서나 또는 自治論的인 성격으로 기울어졌다면, 같은 우파 민족운동선상에서 이들과는 구분되는 實力養成論的인 차원과 함께 구체적인 민중의 생존적인 상황을 변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었다.

物産獎勵運動은 이미 1900년대 日貨排斥運動에서부터 그 성격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3·1운동 이후에도 일부 그러한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그

러나 이 운동의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출발은 역시 1923년 1월에 조직된 조선물산장려회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朝鮮物産獎勵會는 그것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민족의 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사람의 物産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조선사람이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와 같은 각오와 이와 같은 노력이 없이어찌 조선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발전할 수 있으리요.”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물산장려회는 ①조선의 産業을 장려하여 조선인의 산업적인 지능을 개발하고 실업에 종사하게 하며 ②조선인들에게 조선인이 만든 生産品을 애용하게 함으로써 조선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③조선인들의 경제생활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그것을 고침으로 經濟를 발전하게 한다는 것 등이었다.

당시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물산장려회는 그것을 조직했던 중요한 社會勢力으로는 다음 몇갈

래의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인사들로는 이른바 民族陣營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인사로서는 백관수, 김철수, 이갑성, 박동원 등이다. 그 다음의 두번째 계열은 愛國啓蒙運動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인사들로 이들은 주로 교육계나 청년활동 그밖에 종교운동의 지도자들이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인사로서는 설태희, 이종린, 이득년, 이시완, 김동혁 등이었다. 세번째의 부류로서는 주로 經濟界에 속하는 인사로서 여기에 속하는 인사로서는 김덕창, 김윤수 등이며 그밖에 경제학자였던 이순탁 등도 여기에 속했다.

朝鮮物産獎勵會는 창립된 이후 약 7~8개월 정도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그들의 주장이 상당한 呼訴力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은 없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조차 염출되지 않아서 곤궁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物産獎勵運動이 초기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상당한 기세를 올렸지만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처럼 활동이 약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첫째로

時代的인 性格과 理念的인 限界에서 빛어진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이미 그 당시는 일본의 자본주의적인 掠奪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인에 의하여 생산된 物産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법칙을 무시한 일종의 觀念的인 意識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도 이미 社會主義的인 思想體系가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보수적인 또는 전통적인 民族意識으로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존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指導部의 구성에서 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실제로 名望家的인 위치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식민지 統治支配勢力의 한 요소적인 성격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민족운동의 가능성 같은 것이 기대될 수 없었다.

식민지시대의 民族運動은 제2단계로 접어들면서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념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였지만 指導體系에서나 行爲樣式, 戰略面에서도 변화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理念面에서는 보수 우파의 민족운동이 보여 주었던 民衆啓蒙論이라든가 또는 實力養成論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사실상 그것의 이론적인 측면이 지극히 빈약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민족운동의 효과적인 理論體系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점에서 제2단계에서는 이론적인 자기 모색이 社會主義的인 志向性을 보여 주게 되었으며 보수 우파의 민족운동의 이념적인 한계성에 젖어 있었던 당시의 靑年層에게는 쉽사리 이념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민족운동의 指導體系에서도 역시 초기단계의 보수 우파 중심의 지도자들은 유지적인 名望家로서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들의 사회적 성격 자체가 조선왕조시대에서부터 支配階級으로서 일반 민중과의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일종의 選民意識이 여전히 양반적인 사고로 편협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과의 離反的인 거리관계는 필연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그들이 보여 주었던 태도는 民族의 指導者로서는 그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바

로 이 점에서 젊은 청년들의 信望을 잃어버렸고, 젊은 청년들은 그들 자신이 직접 민족운동의 指導體系를 형성하는 성격을 보여 주었다.

민족운동의 戰略面에서도 제2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 이전까지 보여 주었던 외국의 強大國에 의한 자원이나 또는 시기적으로 段階論의 주장이라든가 그밖의 實力養成論 등으로는 상황을 독립운동의 차원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바로 이 점에서 제2단계에서는 民衆力量에 의한 직접적인 民族鬪爭의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제2단계에서부터 민족운동은 사실상 右派的인 민족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민족운동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시기에 이르면 민족운동은 자체내의 성격에 의한 分裂現象을 보여 주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민족 내적인 투쟁까지도 전개해야 하는 二重的인 투쟁의 양상으로 나아갔다.

바로 1930년대의 민중민족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로서는 농민에 의한 小作爭議와 노동자에 의한 勞動爭議의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일제 植民地統治의 약탈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 그 주된 대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빈곤은 극도에 달했다. 당시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의 農民收奪過程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① 제1단계(1910년대) :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 ② 제2단계(1920년대 전반기) : 제1차 산미증식계획
- ③ 제3단계(1920년대 후반기) : 제2차 산미증식계획
- ④ 제4단계(1930년대) : 농촌진흥정책 및 자력갱생 운동
- ⑤ 제5단계(1940년대) : 제3차 산미증식계획 및 국가총동원체제

전반적인 단계를 고찰할 때 결국 식민지 통치자들은 朝鮮에서의 중요한 경제적인 약탈대상을 농민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강압적인 收奪을 강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농민수탈의 중요한 정책을 朝鮮人 일부 거대지주와 日本人 지주를 보호하고 그들을 앞장세워 일반농민을 소작농민의 상태로 전락하게 하고 고을의 小作料를 강탈하게 하는 수법을 자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식민지 약탈정책은

자연히 농촌에서의 인구구성비와 地主와 小作農 사이의 수적 관계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령 농촌에서는 자작농이 감소되고 소작농이 해마다 증가하여 1920년대 말에는 자소작 합쳐서 小作農이 81.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자소작농은 약 31.4%, 순수 소작농은 50.2%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곧 조선농민 중에서 반수 이상이 小作農으로 해마다 絶糧農家의 흑심한 생활고에 전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머지 일부분 즉 약 30%가 넘는 農民들도 역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의 농촌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地主만이 식민지 당국자의 지원하에 농민 수탈의 실제적인 下手的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을 보여 주었다.

전체 농민 중에서 80%가 넘는 농민이 小作農으로 실제 지주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을 수탈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역시 고율의 小作料였다. 이러한 성격을 당시의 한 문헌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농업에 있어서의 資本制的 支配의 가장 현저

한 것은 외래의 기업적 지주 경영의 소작농민에 대한 資本支配 그것이다. 상층으로부터 주입된 다액의 자본이 최하층에서 모세관적 접촉을 農民經濟에 강요하면서 다시금 이윤을 내포하고 상층에 復歸上昇해가는 과정이야말로 실로 우리들 주목을 필요로 하는 바이다.

이제 여기서 기업적 지주의 農民支配를 생각해보자. 지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속 소작인에 대하여 극히 地主主義的인 정세엄중한 경작방법을 강제한다. 그들은 먼저 농민에 대하여 재배해야 할 품종을 지정한다.—여기에서 농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資本支配의 제일보가 시작된다. 品種의 지정이 정해지면 일체의 栽培技術은 끊임없이 질서있게 명령되고 감시되며 그 틀에서 벗어날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農民은 다만 노동자와 같이 유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정해진 시기에 移植을 하고 정해진 때에 除草를 하며 처방전과 같이 비료를 준다. 허락된 부분은 자본의 이익에 관계없는 극히 경미한 감시와 명령할 만한 것이 못되는 한사에 한한다.—그러나 地主가 수득하는 벼는 단지 소작료 벼만이 아니다. 소

작료 벼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에 부수해서 여러가지 轉貸資本의 청구가 행하여진다. 알 비료대, 알 농구대, 알 대부금, 알 농량도, 알 종자대 등등. 이러한 것은 가을에 환산되어 모두 벼로써 남김없이 회수가 된다. 따라서 농민은 全收穫高의 7할 내지 8할을 지주의 창고에 납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流通過程의 기점에 있어서 이미 자본은 스스로의 지배를 신속주도하게 완료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小作農民들은 전체 소득의 7~8할을 地主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 자체는 극도로 劣惡한 위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만일 농민들이 소작료에 대한 항의나 소작료 납부에 지체될 경우 소작지를 다른 小作農에게 넘기기 때문에 비록 극도로 불리한 조건하에서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農村社會에서 소작농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특히 일본계의 농업이민 지주의 경우가 더욱 심했다. 이들 일본인들은 그 당시 동양척식회사나 불이흥업주식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日本地主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세한 일본농민이 조선에 진출하여 농

민을 약탈하는 農業的 搾取를 감행하고 있었다. 이들 일본인 지주의 숫자가 해방될 때까지 약 1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小作爭議가 기록에 공식으로 발견되기는 1919년 11월의 황해도 흑교농장에서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숫자가 격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920년부터 1939년까지 20년간 小作爭議는 수적으로 약 14만 969회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곧 “당시 소작쟁의는 조선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었다. 소작쟁의의 원인으로는 小作取消나 小作權關係가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주된 투쟁의 목표는 초기에는 小作權의 移轉이나 剝奪에 대한 반대였지만 점차 小作率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가령, 1922년 9월 4일 진주의 조선노동공제회 주최의 小作勞働者大會에서의 결의는 그 첫째가 종래의 지정 소작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小作料는 종전의 7~8할에서 생산의 반분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주에 대한 無償勞役이나 物品贈與의 관습에 반대하는 등 점차 그 대상을 지주라는 계급적인 성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당시 이미 국내에 유입되었던 社會主義思想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1925년의 조선공산당의 창당은 農民問題와 勞働者問題를 양대 핵심적인 투쟁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思潮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간추려 설명하면 소작쟁의운동은 植民地時代 민족운동에서의 일종의 전환기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운동의 左翼的인 主導性을 의미하며, 둘째로는 민족운동의 성격이 단순히 反日鬪爭的인 일면적인 투쟁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지주, 자산가를 적대적인 세력범주로 설정하게 된 이른바 二重同時鬪爭論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지적하였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서 국내의 民族運動의 우파 중심의 투쟁은 사실상 극히 미약했으며 단지 부분적인 현상으로 귀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民族運動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운동에서의 社會主義와의 접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변용의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소작쟁의는 단지 小作農의 소작권의 문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내 민족운동이 새로운 局面에의 돌입을 예고한 사건들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 小作爭議는 사회주의적인 중앙의 指導體系가 실제로 관여된 조직적인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의 소작쟁의는 啓蒙主義的인 민족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운동으로서의 소작쟁의는 극히 한정된 의미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농민의 경제적인 약탈이나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은 오직 농민 각자의 개인적인 자기의식의 啓蒙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의 努力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기적인 小作爭議의 전개는 곧 이어 1920년대의 말에 이르면 중앙의 '주의자', 즉 社會主義者들에 의하여 지도되었는데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사실상 또 다른 의미에서의 啓蒙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농촌에서의 열악한 삶의 상황을 경험하기보다는 일종의 觀念的인 認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라는 것도 사실

상 그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社會主義的인 人士들에 의한 소작쟁의의 지도는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대체로 朝鮮勞動共濟會나 朝鮮勞農總同盟 등의 조직체적인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이들 조직은 그 이면에 朝鮮共產黨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앙의 사회주의적인 지식인의 계몽적인 소작쟁의의 지도는 실제 農民들의 삶과 간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소작쟁의의 전국적인 투쟁의 效率性을 얻지 못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은 마침내 농민들 자신에 의한 자기 利權의 경제적인 생존권의 실천적인 투쟁으로서 이른바 赤色農組活動이 즉출하게 되었다. 적색농조는 다음 두가지 면에서 이전의 중앙의 사회주의적인 知識人의 지도하에 전개되었던 소작쟁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소작쟁의의 지도체계가 小作農民 자신에 의하여 충당되었다는 점이다. 즉, 농민들 속에서 스스로의 小作爭議를 지도하고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둘째는 전국적인 연대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각기 개별적인 地域單位 또는

특정의 農場單位로 소작쟁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당시 농민의 의식이나 투쟁의 실체가 그만큼 具體的, 鬭爭的인 의식으로 고양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에서의 勞働者階級의 형성은 사실상 식민지 약탈과정에서 조성되는 産業化의 결과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産業勞働者의 형성은 대체로 1920년대 말에 그 기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국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대공황의 시발을 보여 주었던 1929년의 여파로 인하여 당시 後發資本主義的인 산업화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중요 産業統制法을 제정·공포하였고, 파쇼체제에 의한 국가동원적 정치체제적인 상황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국내의 중요 기업체가 低賃金과 행정의 제약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었던 朝鮮에 기업을 진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숫자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1930년에서 1936년 사

이에 조선에서의 工場은 1,666개가 증설되었고, 工業生産額은 269%나 증가했으며, 鑛業生産額도 이 기간중 2465만원에서 1억 62만원으로 4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賃金勞動者의 숫자만도 118만 5천에서 1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鑛工業勞動者는 1928년의 약 6만 6천명에서 1936년에는 32만 8천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本國의 중요한 재벌인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찌, 이도쥬, 동척, 전력연맹, 닛산, 히와다 등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들 재벌기업은 이윤의 極大化와 국제적인 競争力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히 노동자에 대한 掠奪賃金體制로 돌입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연장현상까지 자행되는 등 勞動者의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하여 공장의 休·廢業이 잇달았으며 失業者의 양산이 행해지게 되었다. 가령 1930년대 초 京城에서만 해도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는 전체의 29.58%가 실직을 했으며, 일고노동자는 31.22%, 공장노동자는 57.47%가 실직자였다. 그러면서도 勞動時間

은 약 1~2시간 정도 연장되었으며, 임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20% 이상이나 인하되는 등 노동자의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선에서의 民族運動의 실천적인 추진은 이들 勞動者를 외면한 그 어떤 존재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파 민족운동에서는 여전히 이들 노동자나 농민을 단순히 啓蒙의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들에게 단계론적인 愛國啓蒙論的인 논리로써 현상을 극복하려는 비현실적인 시도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勞動者의 이러한 실정은 자연히 사회주의적인 인식의 適實性을 그만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즉, 社會主義陣營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히 民族運動을 사회주의적인 방법과의 연계라는 동시적인 상황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시도는 단지 사회주의의 이념을 선진국적인 社會主義思想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植民地 社會主義라는 특징적인 요소를 고려함으로 이

는 자연히 民族主義的인 要素를 사회주의적 혁명과정에 부가시키는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이미 당시의 상황에서는 社會主義의 民族運動만이 하나의 실천적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朝鮮共產黨의 이념적인 전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공산주의 이념의 초기 수용과정 : 대체로 1920년대 후반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

② 공산주의 이념과 우파 세력과의 연대 모색 : 대체로 1930년을 전후로 한 시기가 여기에 속한다.

③ 공산주의 이념의 사회혁명론적인 회귀 : 대체로 新幹會를 해체하고 난 후 코민테른의 10월 테제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인 혁명이 곧 民族問題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적인 민족운동이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성격으로 勞動階級의 민족운동은 전략면에서나 그 본질에서 民族을 위한 투쟁과 社會變革을 이룩하려는 투쟁을 동시적인 것으로 설정함

으로서 마침내 二重同時革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한가지 사례로서 1930년
 1월에 일어났던 朝鮮紡織 釜山工場 2,270명의 전면
 파업을 들 수 있다. 조선방직의 파업은 그 이면에
 사회주의적인 조직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형식적으
 로는 그곳 노동자의 親睦團體인 중락회가 주도한 것
 처럼 하여 비교적 온건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罷業에
 돌입하였다. 이들이 내걸었던 요구조건은 ①노동시
 간을 8시간제로 할 것 ②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
 불 ③임금의 적정 인상 ④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
 반대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朝鮮紡織側이
 반대하였음과 동시에 오히려 일본경찰이 강제로 해
 산을 명하는 등 官權의 개입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해산을 시도하였다. 기숙사에 감금당하고 있었던 女
 工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罷業指導者의 귀향조
 처에 대하여 강경하게 맞서는 등 전체 조선방직 노
 동자들의 투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방직
 파업은 전국적인 勞動者의 연쇄적인 罷業을 가져왔
 으며, 이는 결국 당시의 사회주의적인 反日運動의
 조직적인 행동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성격을 가지

고 있었다. 조선방직 파업은 800명의 재취업자의 행동으로 勞動爭議는 결과적으로 종식되었지만, 그것은 당시 조선의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조직된 힘의 강대함과 조직투쟁의 効果性을 실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방직의 파업은 1930년대 전국 노동자의 罷業을 잇달아 발생하게 했던 시발이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노동자의 파업은 점점 社會主義的인 의도를 내포한 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가령 興南의 공장지대에 뿌려진 유인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개진될 정도로 점점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노동자의 民族·階級的인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흥남 공장에서 나돌았던 유인물의 내용은 “5·1 메이데이에 제하여, 전 무산대중에게 고함. 친애하는 노동자제군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항의와 계급전에서 단결의 깃발인 5·1 메이데이는 왔다. 메이데이 행진에 참가하라. 1.정치적 총파업으로 5·1 메이데이를 마지하라. 1.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1.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자. 1.소비에트 러시아를 절대로 사수하자.”

이러한 유인물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노동자의 民族運動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명적인 성격을 주조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민족운동은 실제로 社會主義的인 指導下에 전개되었음을 의미하였다.

植民地時代의 민족운동은 이미 1930년대의 말에 이르면 일제의 帝國主義的인 침략이 일본 국내의 파쇼적인 체제하에 의하여 軍國主義的인 지향성을 강하게 보여 주게 되었고 그것은 곧장 滿洲事變, 中日戰爭 그리고 그 뒤 太平洋戰爭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전시통제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파쇼적인 탄압은 그 이전보다 더 한층 가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이른바 戰時總動員令的인 억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총후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극심한 思想統制와 統制社會의 전형적인 억압양식을 나타냈다. 이들의 이러한 통제는 사상적인 차원에서 右派에 대해서는 회유와 강제에 의하여 거의 대다수의 우파를 변질시켜 親日的인 위치에 서게 했으며, 비록 공식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이지 않

더라도 機會主義者로 잔존하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사상통제가 가장 격심하게 실시되었던 대상은 社會主義的인 人士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그 당시 대다수는 일제 식민지의 사상개조적인 기관이었던 대화숙에서 再教育을 받게 되었거나 전향서를 제출하여 겨우 一身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지하에 잠입하는 등 실제로 朝鮮共產黨과 같은 조직적인 기관은 전면적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社會主義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었고 이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실제 민족운동선상에서 遊休의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民族運動은 표면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민족운동이 더 이상 中央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하여 행해졌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기의 국내의 民族運動은 비록 신문이나 일반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民衆의 최하 기층에서는 관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 몇몇 사범학교나 고등보통학교 등

에서 일어났던 讀書會事件들을 지적할 수 있고 또한 교내의 시위, 등교거부 등을 들 수 있으며 노력봉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 등도 이러한 성격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중앙의 指導者的인 人士들이 대부분 지하에 잠입했거나 친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일반 민중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비지속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社會主義的인 民族運動의 성격을 그대로 지속시켜 가고 있었다. 사회주의는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民族解放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이념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결과 일반 민중의 의식에서는 벌써 지주와 일부 자산가들이 사실상 親日的인 支配勢力의 한 요소로 잔존되고 있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民衆的인 민족운동이 완전히 社會主義的인 성격으로 고착됨으로써 마침내 植民地 民族運動의 전형적인 속성을 함유하게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1940년대 초에 국내의 우파 민족운동이 사실상 그 영향력의 한계를 보이고 또한 그들의 이념적인 성격이 사실상 保守支配勢力의 지속에 불과함을 고

려할 때 우파 민족운동의 이념은 소진될 형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우파적인 또는 중간파적이거나 순수 우파적인 계보의 인사들에 의한 右派民族運動의 이념적인 자기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民族主義的인 理念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파 민족운동에 종사하였던 이전의 중도 우파, 즉 新幹會 참여파는 상해 임정계의 三均主義的인 민족이념을 수용하려 했으며 이것의 구체적인 전개로 상해 임정에 의하여 전개되었던 復國·建國論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呂運亨의 建國同盟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실제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하나는 民族國家의 설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족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分斷國家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한 경우 강대국의 追隨性和 從屬性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앞에서 말한 민족주의 전개의 일반성과 新植民主義的 성격이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여기서는 한국의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歴史的 展開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民族主義 전개를 논의하는 일반론적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신용하,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① 근대 민족의식의 형성기 : 18세기 말의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실학운동.

② 근대 민족운동의 태동기 : 강화도조약에서 일본의 침탈시기.

③ 근대 민족운동의 표출기 : 일본식민통치 초기에서부터 3·1운동까지.

④ 근대 민족운동의 분화기 : 3·1운동 이후 좌우익간의 대립과 신간회 해체기.

⑤ 근대 민족운동의 침하기 : 1930년대 이후 현대까지.

이와 같은 民族運動의 전개과정을 고려할 때 그것에 연원하고 있는 사상사적 흐름과 계보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이 지적할 수 있다.(진덕규, “현대 한국정치변동과 민족주의의 변용에 대한 연구서설”, 한국문화연구원논총, Vol. 60, No. 2, 1992)

<韓國民族運動의 展開와 思想的 系譜>

1. 실학사상	· 서구사상의→수용 갑오개혁과 재조 개화파의 형성————→	독립촉성국민회
	· 애국계몽운동→신민회, 신유학 운동(백암계)————→ · 척양, 척외 동학농민전쟁→천 도교 민족운동————→	임시정부
2. 성리학	· 재야척사운동————→	
	· 재조 반일운동→만주의 독립군 활동————→	
3. 사회주의	· 국내좌파형성→코민테른 추수 성→적색노동투쟁————→	조선공산당
	· 민족적 사회주의 계보————→	건국준비위원회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民族主義는 역사적으로 그 전개과정에서 국내의 전통적 價値觀念과 외래적 사상을 수용하여 민족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民族成員의 이념적 가치관념으로 정착되기보다는 지배세력 또는 지식인의 觀念的 性格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해방 당시 民族國家를 형성하여야 할 시점에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있는 政治社會의 體制의 齟齬로 인하여 분열의 상황, 즉 신식민주의적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다. 앞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解放 당시의 중요한 민족적 사회세력으로는 李承晩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적 정치집단으로서의 獨立促成國民會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朝鮮共產黨은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적 추수성에 좌우되는 성격을 보여 주었고 그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 上海 臨時政府系와 建國準備委員會였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左右翼의 대립은 강대국의 한반도 占領政策의 자장에 의하여 극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중간적 성격을 보여 주었던 上海 臨時政府系와 建國準備委員會系는 자연히 좌우의 양진영에 편입되는 성격을 보여 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민족국가로 이어지지 못한 채 新植民主義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의 失敗와 限界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분단국가를 형성하였다는 것 자체가 곧 민족주의와 무관한 신식

민주의적 追從勢力의 발호와 강대국의 지원에 힘입은 買辦的 勢力들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단상황에서 북한에 정권을 수립한 金日成은 대표적인 반민족적 買辦勢力일 수밖에 없으며, 남한도 역시 外插國家的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었다.(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 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Vol. 59, No. 2, 1991)

다. 韓國民族主義의 現實的 限界

현대 한국사회는 남북한 모두 民族主義의 실패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민족의 차원에서는 近代民族國家의 미형성이라는 특징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스크바 追隨性和 남한의 워싱턴 影響圈에의 합류라는 1950년대 이전의 상황에서, 자연히 분단국가로서의 구조화는 民族戰爭이라는 반민족적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반민족적 현상과, 이어서 分斷社會로 이질적인 발전을 추구함

으로써 각기 民族的 正統性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관계를 통하여 서로 다른 체제적 속성을 조성하게 하였다. 특히, 북한에서의 김일성부자 지배체제가 보여주는 神政體制는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왜곡으로 전락되었으며, 개인의 우상화와 一家一門의 권력장악을 위한 민족사회의 붕괴를 기정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북한의 경우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① 북한에서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소련 군정하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親蘇勢力의 등장과 소련의 하수인적 존재로서의 김일성의 權力構造化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민족주의 세력의 제거와 자유주의적 인사의 추방 등의 사회현상을 보여 주었다.

②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 韓國戰爭을 일으킴으로써 반민족적 분열행위를 최고도로 지향하였다.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한반도를 강대국 追隨勢力의 이권을 위한 대결장으로 전락시켰다.

③ 1950년대 말과 1960년대까지 김일성은 북한사회에서 권력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佳民平定事業의

일환을 보여 주었다. 철저한 주민통제정책과 공산주의 이념위주의 社會體制化를 추구하였다.

④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經濟成長과 政治制度의 확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의 결합을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성격이 千里馬運動으로 이어졌으며 이어서 大安里體制 등의 경제와 정치의 복합성이 전개되었다.

⑤ 1970년대 중반기부터 소위 김일성의 主體思想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김일성의 우상화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바로 神政體制의 본질로 이어졌다.

⑥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김일성 우상화는 김일성·김정일의 世襲的 지배체제를 확정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통제경제의 성격상 生産性的의 저하와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현실적으로 구 소련권의 붕괴와 社會主義陣營의 몰락에 의한 결과로 그 충격의 도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남한에서의 민족주의의 전개와는 구분되는 특이성을 보여 주었다. 남한에서

의 민족주의는 초기 국가건설과정에서의 外插體制的 성격과는 다른 민족국가의 형성에 기초한 근대화의 시도로 전개되었다. 즉, 외삽체제적 국가를 민족국가로 轉換하기 위한 시도가 위로부터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 주게 되었다(진덕규, 같은 논문, 1991). 이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韓國에서의 現代民族主義의 展開>

1. 일민민족주의(1945~1950년대) : 반공이념으로 전통적 민족감정에 바탕을 둔 이념.
2. 계몽적민족주의(1960년대 초) : 자유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족사회주의의 접합.
3. 교도적민족주의(1962~1967년) :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정립을 위한 이념화 기능.
4. 산업화민족주의(1967~1972년) : 산업화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추구.
5. 국가민족주의(1970년대 후반) : 강력한 군사권위주의체제의 형성.
6. 민족주의대립(1980년대 이후) : 근대화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 사이의 대립적 현상.

앞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民族主義는 비록 민족구성원 전체의 감정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近代民族國家가 지향하여야 하는 主權의 獨立을 경제적 자립에서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그것에 의하여 사회의 近代化가 전개될수록 그리고 산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수록 國家主義的 경향을 보여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려는 일종의 저항적 민족주의 성격으로 民衆民族主義의 대두를 보여주는 갈등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5. 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理念的 基盤

가. 統一의 理念的 前提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의 民族主義는 같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民族主義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民族間

題 또는 民族意識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민족주의적 의미와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金日成 主體思想은 기본적으로 ①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격 ②한국민족적 정서와 감정의 근본적 전통 ③김일성의 우상화 ④북한사회의 대외적인 적대의식의 발로를 그 성격으로 含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북한주민의 민족적 감정을 原初的으로 점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비록 민족주의가 공식적인 國家理念으로 전제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연히 민족적 감정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國家民族主義와 民衆民族主義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격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葛藤이나 對立의 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이념의 同質性이나 統一性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남북한의 현존성은 사실상 민족주의의 歪曲과 離脫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전통적이고 정당한 민족주의의 消滅과 消盡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정치사회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점은 실제로 통일의 志向性에서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이며 통일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志向理念은 무엇인가를 定式化하지 않는 통일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혹 그러한 이념의 설정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의 意味와 價値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의 통일은 그 이념적 가치가 바로 民族主義일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며 통일은 곧 韓國民族主義의 완성이자 民族國家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韓國民族主義는 곧 통일의 이념적 전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어떠한 성격의 민족주의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내용만을 전제하기로 한다.

첫째, 통일을 위한 한국민족주의는 한국의 민족적 傳統과 正統性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민족구성원의 사회적 통합과 民族國家發展에 기여적이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對等性和 民族的 獻身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이 세가지 전제는 곧 통일을 위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개략적으로 설정해주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먼저 韓國民族主義가 지향해야 할 민족적 傳統과 正統性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존재양식을 보여 주는 것일까.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한 한국민족주의의 本質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의 기본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① 한국민족주의가 담고 있는 전통은 민족적 同質性과 민족적 自矜心을 심어 줄 수 있는 역사적 근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한국민족주의의 전통성은 특정 계급이나 특정 영역의 문화적 양식에서 벗어난 民的, 共有的 公同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한국민족주의의 전통성은 현대적 開放性이나

競爭性和 연계되어 긍정적인 기여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傳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한국민족주의는 그것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統攝과 國家發展에 기여적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사회의 階級的 지배논리와 지배성을 강화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대등성과 가치적 평등이 定向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평등적 志向性이 계급적 평등의 성격보다는 인격적 평등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기능의 多樣性이 보완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이념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실적으로 인격적 평등과 함께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성격을 함유할 수 있는 政策的 志向性을 그 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발전의 戰略的 내용이 곧 그러한 성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족주의가 세계사적 연대위에 發展的이면서 開放的인 요소를 구비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전제적 지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령 韓國民族

主義가 단순히 자기 민족의 발전이나 한국만의 세계적 지배를 전제로 하는 理想的 성격을 강화하게 될 때 이는 곧 帝國主義의 한 전형으로 전락될 여지를 안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사적 보편성이 놓여 있는 사상사적 基盤과 그것에 연계된 집합적 思想體系로서의 한국민족주의가 지향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兩體制 理念의 現實性

남북한의 理念을 統合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이미 앞에서 말한 理想的 價値體系를 공유하면서 이를 이룩할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으로 다음과 같은 戰略的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이념을 초월하여 새롭게 민족의 미래적 지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일종의 當爲的 理念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남북한 이념의 유사성과 공유지분을 확대하여 양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異質性을 마침내 克服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남북한 이념의 現實性을 고려하여 양자를

완전히 結合할 수 있는 일종의 산술평균적 결합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가지 전략 중에서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둘째의 경우이나 그러한 共有持分의 확대는 시간적으로 지체현상을 보여 줄 여지가 있음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남북한 이념의 통합을 위해 어느 방법이 보다 妥當性이 있는가를 論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로 실제 양체제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共有要素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문제를 인

<南北韓 理念의 現實的 存在樣式>

인식의 기준	한국(자유민주주의)	북한(김일성 주체사상)
민족 개념	단순한 관념적 성격으로 치환됨.	민족 긍지와 주체성 의미로 인식
개인 인식	행위와 평가, 참여의 기본인자	이기적 본성으로 파악함.
국가 인식	다양한 이익집단의 통합조정기구	무오류의 공산당 지배체제
역사 인식	의식과 사회의 연계적 발전과정	생산력에 의한 유물론적 인식
미래 관	자유지의의 실현과 개인적 인격화	공유체계에 의한 집단적 공산체제
대외 관	공존적 평화추구	연대와 갈등의 이원구조로 파악

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앞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兩體制의 이념을 비교 인식하기로 한다.

앞의 대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自由民主主義와 金日成 主體思想은 서로가 정반대의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양체제의 이념의 공유부분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의 경우 그것이 비록 民族的 感情과 傳統的 民衆意識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일성의 偶像化에서 오는 역사의 왜곡성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誤謬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념적 통합을 위한 共有持分의 확대와 같은 認識이나 절충적 混合論議는 실제로 그 근거를 상실하고 만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서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金日成 主體思想과 自由民主主義가 서로 수렴적인 연계성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양체제의 이념을 기본적으로 각각 그 본래의 성격에서 부분적으로 變容함으로써 마침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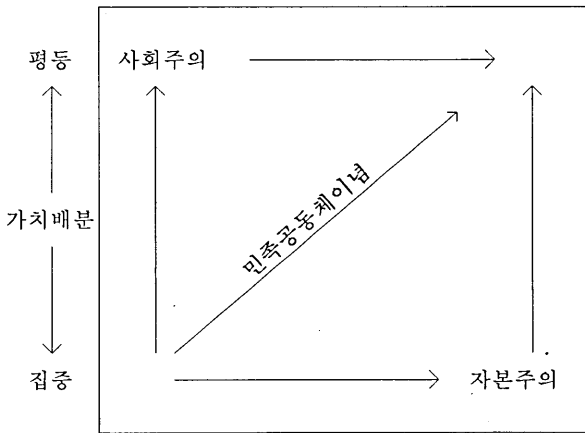
로 一致性을 구현할 수 있는 수렴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데올로기 收斂論이 보여 주었던 허구적 논리의 경험에서 더 이상 환상적 기대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양체제의 이념을 수렴적 인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適實性을 결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남북한 양체제 이념의 통합은 기존의 양대이념을 混合하거나 收斂 또는 공유지분의 擴大와 같은 논의로는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양체제의 이념을 超克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양체제의 기본 가치적 속성을 수용하여 民族社會가 구현하여야 할 새로운 민족공동체적 이념을 설정·논의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북 양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 중에서 民族共同體로 지향함에 있어서 가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함과 동시에 이미 앞에서 논의한 인격적 정치공동체의 요소로 平等, 自由, 秩序, 發展의 성격을 포용하고 여기에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의식을 접목시킴으로써 民族共同體의 지향이념을 새롭게 설정할 필연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남북 양체제의 가치지향적 성격에서 북한의 이념에서는 平等志向性을, 그리고 한국의 이념에서는 개인의 自發性과 創意性을 추구하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도표가 가능해진다.

<民族共同體 理念의 具體化를 爲한 認識>

타율 ← 개인의 정치참여 → 자율



이 그림은 한국의 自由民主主義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북한의 金日成 主體思想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범주로 인식함으로써 양

자의 이념적 기본속성을 전자의 경우는 가치배분이 集中的이며 개인의 自律性を 강조하는 이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의 정치참여에서 他律性を 기본으로 하면서 인위적 가치배분의 平等性を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經濟的인 가치배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平等性を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의 自律權을 신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성격의 지향이야말로 앞으로 民族共同體가 추구하여야 할 이념의 당위적 전제라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적 이념의 구현이 결국 두가지의 의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진다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양체제의 기본적 가치를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민족공동체의 당위적 목표로서의 평등, 자유, 질서,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Jonh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Verso, 1988, Chap.7 참조)

자율성과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격적 政治共同體로서의 성격을 함유함과 동시에 민족사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성격이 부가된 價値體系를 민족공동체 이념으로 설정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

개할 수 있는 政治體制는 어디에서나 구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서는 먼저 다음의 條件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에 근사한 체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사회구성원의 創意性和 自發性を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별적 창의성을 고려하지만 인간적인 基本價値를 유지함에 요청되는 사회적 제조건의 對等性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간적 존엄성이 상호 보장되고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개인의 尊嚴性和 氣品이 유지·발전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의 질서와 체제안정이 보장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獨立主權國家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민족적 특수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民族主義的 意志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려한다면 민족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體制的 性格은 다음과 같은 두가

지 체제적 선택을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① 사회복지체제

② 자유조합주의체제

물론 이들 양체제는 모두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령 社會福祉體制가 보여 주고 있는 현실적 한계로서는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과 노동의욕의 상실,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방임적 인간형의 등장이라는 일종의 文明病을 가져다 주었다. 즉, 사회보장은 물질적 조건의 충족은 이룩될 수 있었지만 정신적 풍요함과 인격적 가치의 고양에는 실패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自由組合主義體制는 조합주의의 기본으로 인간을 일정한 조합과 같은 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개인 단위의 自律性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심지어 조합대표에 의한 일종의 勞動貴族의 타락현상이 나타날 위험도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社會福祉體制와 組合主義體制를 논의하는 것은 양자의 속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의 尊嚴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 조건의 제

공이라는 價值的 性格을,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정치사회에서의 개인의 參與와 自律性的 제고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 양자를 어느 선에서 서로 결합함으로써 이른바 ‘社會福祉的 組合主義體制’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다. 統一을 爲한 民族主義의 理念體系

앞에서 말한 이러한 성격의 전제 위에서 韓國民族主義의 미래를 설정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接合이나 기존의 사상체계를 統合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統一을 위한 한국민족주의를 기존의 이념의 통합에서 얻으려는 일종의 제3의 이념적 대안으로 추구하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단지 觀念論的 作爲에 불과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격 때문이다.

첫째로, 서로 이질적인 思想體系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통합의 공통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기 때

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둘째로, 기존의 사상체계는 그것에 연관된 支配勢力과 利得階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두 지배세력의 統合이나 結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현대 한국사회의 두가지 대결적인 이질적 이념체계는 단순히 이를 수학적으로 공약수적인 결합을 모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서로 이질적인 상황을 넘어서 對決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화게임이 성립되고 있다. 두가지의 理念에서 공통성을 찾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과감하게 두가지 이념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民族主義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념에서 북한에서는 이른바 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와 한국정부에 대한 적대적 대결감을 고취하고 그것 위에 사상적 지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資本主義的 自由主義도 역시 이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북한사회와의 경쟁과 대립체제로서의 자본주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결코 합쳐질 수 있는 統攝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民族主義의 이념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그리고 과제로 대두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論議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난 날의 民族

<韓國民族主義의 새로운 理念的 前提>

1. 역사적 전통	단군 이래의 사상체계로 조선조 이전의 고려시대적 전통성
2. 이념적 전통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로부터 민세 안재홍의 민족국가지향이념
3. 민족행위의 기준	대외적 저항과 대내적 통합지향의 역사적 사실성(안시성전투, 고려의 대륙수복, 동학농민항쟁 등)
4. 미래적 가치	사회통합과 인간주의적 연대, 인격체적 공동체주의, 국가 중심의 미래세계 실현
5. 개별적 삶의 양식	인격적 자아완성의 신념체계, 가족체 사회구조의 합리성, 창조와 성취 동기 그리고 집합의식의 강화

主義적 사상체계에서 그 전통적 共有性을 구축하고 이어서 여기에다 한국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적 定向性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형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전제하면서 앞의 표와 같은 民族主義的 傳統性을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해야 할 統一의 미래적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民族思想體系를 이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현실적 政策性으로 표출될 수 있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① 정치적 성격 : 단순히 議會主義的 제도에서 벗어나 自由主義的 組合主義 형식의 국가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정상배적 정치인을 도태시키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國民協議的 의회기관을 설정하는 정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도 지금과 같은 계급중심의 정당제도에서 벗어나 聯隊的 정당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多元的 정당을 구성할 수 있지만 통합적 연대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② 경제적 성격 : 단순히 경제발전이나 생산성만을

위주로 하는 資本主義體制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획일적인 統制經濟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점에서 시장지향성과 인격적 삶의 보장이 맞물려 기능할 수 있는 經濟構造化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적 성격 :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적 消費文化의 감각성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人格的 삶의 존재로서의 개인적 自我와 가족체적 삶의 原形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회적 성격 : 전반적으로 사회구조면에서 지금과 같은 계급적 성격이 生産手段의 소유 여부로 결정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고 階級을 넘어설 수 있는 헌신적 社會身分의 여지가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민족주의적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理想的 新구상이 대담하게 설정되지 않는 한 한국의 통일은 비록 그것이 外的 衝擊이나 社會的 氣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민족적 갈등이나 위기로 이어질 여지를 안게 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民族共同體의 이념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의 具體性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진덕규, “이데올로기 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 I, 1991)

6. 結言—統一을 爲한 民族主義的 삶의 樣式

일반적으로 民族主義나 또는 일정한 思想體系는 관념으로만 시작되고 관념으로만 남게 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統一과 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의 民族主義는 결코 관념적인 성격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적인 가치로 논의되는 차원으로만 시종된다면 그것은 결코 민족주의의 日常化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민족주의적 지향을 實踐化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삶의 양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愛國心의 구체적인 설정과 과정이 行爲樣式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의 기본가치체계로 民族的 헌신과 社會共同體의 발전에 기여적인 것으로 명시되는 새로운 양식의 삶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의 民族主義는 기본단위로서의 集團이나 家族體 등에 대한 일정한 자기 위치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內容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지배세력의 權力掌握과 그것의 합리화를 위한 動員論理로 시종되어 왔음을 전제로 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 민족전체의 삶의 樣式으로 설정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집단적 사회의식의 강화로 執權勢力이 挑戰勢力을 차단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형태로 민족주의가 시종되는 한 그것은 결코 민족주의가 담아야 할 內容이나 未來的 價値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구체화되는 特定性이 요구된다.

첫째로, 가령 지금까지 愛國心의 고양만해도 막연히 주장하고 정치적 집회에 나서기만하면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의 맡은 責任을 다하고 성실한 인간관계에 입각해서 함께 살아가는 祖國임을 인식하는 삶이 애국의 첫걸음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시위나 과격한 도전이나 또는 강압적인 抑壓體制를 보여 주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애국은 극히 사소한 자기 책임의 수행과 社會規範으로서의 질서의 유지에 있다는 것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둘째로, 사회에 기여적인 民族的 삶의 양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우리사회가 보여 주고 있는 행위의 多樣하고 複雜한 성격을 정리하고 이를 합리화해 주는 삶의 公準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위로하고 職場에서 家庭에서 集團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회의하고 일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정한 가치적 公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러한 공준이 없기 때문에 가히 百人百出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준이 없는 사회로서의 혼돈과 무질서를 노출하고 있다.

셋째로, 지적인 삶의 基本單位에 대한 개인의 위치설정의 문제는 먼저 자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세계와의 의미를 具體化해 주는 논리적 설명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스스로가 놓여 있는 位置가 어디이고, 그러한 위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意味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설명력이 현실적으로 개인의 삶에 의미있는 影響力을 발휘할 수 있는 狀況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곧 한 사회의 指導體制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일을 맡아야 할 社會勢力은 그 사회의 민족적 인텔리겐차로서의 知識人들의 창조적 헌신이다.

<참 고 문 헌>

1. Bendix, R., Kings or Peopl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 Clark, R. P., The Third World, New York : Macmillan, 1986.

3. Hagopian, M. N., Regimes Movements and Ideologies, New York : Longman, 1978.
4. Jessop, Bob, State Theory, Oxford : Polity, 1990.
5. Mann, M., The Rise and Decline of the Nation State, Cambridge : Blackwell, 1990.
6. Smith, Dennis, The Rise of Historical Sociology, Oxford : Polity, 1992.
7. Zeigler, H., The Political Community, New York : Longman, 1991.
8. 기든스,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10.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1.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1.
12. 진덕규, 현대민족주의 이론구조, 지식산업사, 1986.
13.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 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91.
14. 진덕규, “현대 한국정치변동과 민족주의의 변용에 대한 연구서설”,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92.
15.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9.

統一과 民族主義 (통일총서 / 22)

1993年 2月 17日 印刷

199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印刷處：江聞印刷社

(통연 93-2-11)

